

우리말과 우리글의
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만든
9월 2차 게시 내용을
소개합니다.

너랑 나랑 우리말로

쉽표, 마침표.



우리말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해 보는 '길거리 어학당'



해콩? 핫콩?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?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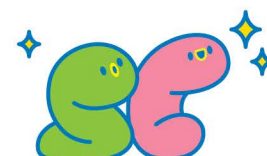
너랑이가 알려드립니다! '우리말 상담소'



좀더/좀 더

3

우리말로 다듬어 보는 '말 다리미'



애니멀 테라피 → 동물 도움 치료

4

목차

해콩? 햇콩?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?

'해'와 '햇'은 '당해에 난'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.
'해콩'과 '햇콩' 중 맞는 표현은 무엇일까요?

정답은?
해콩!

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인
일부 명사 앞에 붙는 경우
'해쑹' '해콩'과 같이 '해-'로 쓰이지만

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닌
일부 명사 앞에 붙는 경우
'햇감자', '햇병아리'와 같이 '햇-'으로 쓰여요.

좀더? 좀 더? 뭐가 맞아?



어문 규범? 어법? 헷갈리는 우리말!

너랑아!
좀더/좀 더
뭐가 맞아?



너랑이 답변

‘좀 더’가 맞아요.



문장의 각 단어는
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
‘**좀 더**’로 띄어 써요.
‘**그 후**’, ‘**그 외**’, ‘**이 중**’도
띄어 써요.

좀더/좀 더 그후/그 후
그외/그 외 이중/이 중



너랑이 답변

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
‘**좀더**’로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.



단음절로 된 단어가
연이어 나타날 때는
붙여 쓸 수 있어요.

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(셋 이상)이 연속해서 나올 때
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.
따라서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거예요.

좀더 큰 이 새 차 / 좀 더 큰 이 새 차

* 여기서 ‘단음절’이란 ‘좀’, ‘더’, ‘아’, ‘그’, ‘자’ 등과 같이
음절의 수가 하나인 음절을 말해요.



좀더가
아닌

좀 더!







유튜브



블로그



인스타그램



2025년 9월 호 2차 **심포, 마침표.**